

수능성적 향상 '골든타임'

전북교육청, '수능 한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설명회 올해 도내 57교 1633명 참여... 2026 대입 맞춤형 집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베스트웨스턴호텔 1층 베스트홀에서 '수능 한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한 도내 57개 고등학교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한등급올리기 90일 프로젝트'는 수능까지 남은 약 90일 동안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밀도 있게 지원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고, 전략 영역을 보완해 수능 한등급 상승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가칭)수능 등급올리반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받는다. 학생들은 전략영역을 정하고, 교사와의 함께 등급 향상을 위한 약점 분석 및 보완 계획을 세우고 90일간 전략영역이 목표 등급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이외에, 수능 시험 전까지 실전 감각

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 시합지를 제공하고,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실전 모의고사의 날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서적 지지 및 동기부여, 정기적인 학습 점검 및 피드백, 자기주도 학습관리 등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대한 밀착 관리로 수능이라는 긴 여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이 중등교육과장은 "수험생들에게 수능 전 90일은 수능 성적 향상의 골든타임"이라며 "참여 학생 모두가 프로젝트를 통해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8일 베스트웨스턴호텔 1층 베스트홀에서 '수능 한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렸다.

때이른 폭염... 안전 대비 강화

전북교육청, 지역교육청 재난업무 담당자 긴급회의 개최 폭염 대응 행동요령 · 단계별 신속 대응 체계 유지 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재난업무 담당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대응 행동요령 교육 △방방방방 및 전력 설비 고장시 대응 방법 △학사운영 조정 검토 △재난 발생시 상황 안내 보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가정통신문 및 보건교육, 교내 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폭염특보 단계에 따른 조치 사항도 안내했다.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단축수업, 휴업 등 학사운영 조정을 폭염경보가 1주이상 지속시 조기방학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단계별로 전담반을 구성, 교육부·교육지



원청·각급 학교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황보고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재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이상현 석사과정생 자원공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전북대학교 이상현 석사과정생(자원·에너지공학 학과 환경지구화학연구실)이 최근 열린 한국자원공학회 춘계 정기총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석사과정생은 '페리톤이온배터리의 바이오침출 시 배터리 내 불순물이 미치는 침출 저해 영향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이 연구는 페리톤 내 내장 불순물이 바이오침출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금속 회수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현 학생은 "연구 과정에서 끊임 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준 황국화 교수님과 안준모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도서관 신규 사서 직무연수

오늘까지... 학교도서관 정책 이해 · 프로그램 운영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9일 이틀간 전주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학교도서관 신규 사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신규 배치한 공무원 사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신규 교직원으로서 안정적 학교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교육청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정책 이해 △바로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독서도DLS 및 독서로 업무 이해 △신규 교직원 행정업무 이해 등이 있다.

특히 운영팀 교육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신규 사서로서 마음가짐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이 가졌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사서 85명을 선발, 7월 1일자로 도내 공립학교에 배치했다.

운영팀 교육국장은 "그동안 도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가 저조하면서 학교도서관 이용률도 낮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독서인문교육이 활성화되고,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특성화고 경쟁력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글로벌특성화고 3곳을 신규 선정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전북글로벌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할 때 이어 올해 남원용성고, 정읍제일고, 줄포자동차공고 등 3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했다.

전북글로벌특성화고는 기존 특성화고교를 신산업·신기술 융합형, 지역전략산업 연계형, 학교 자체 발전형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하고, 학교별로 신산업·신기술 테마가 담길 수 있도록 학교명과 학과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원용성고등학교는 (가칭)케이팝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스마트팜과 △드론팜테크와 △카페플라워과를 신설해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로 재구성한다.

정읍제일고등학교는 (가칭)전북반도체고로 새출발한다. 반도체장비과와 반도체제조과를 신설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줄포자동차고등학교는 (가칭)전북자동차고로 교명을 바꾸고, 오토테크장비과, 오토컬러도장과를 신설해 자동차 정비와 도장 분야에 특화된 실무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신입생 모집은 줄포자동차공고등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나머지



올해 전북글로벌특성화고로 신규 지정된 남원용성고 학생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남원용성고 · 정읍제일고 · 줄포자동차공고 등 전북교육청, 전북글로벌특성화고 3곳 신규 지정

학교들은 2027학년도부터 새로운 학과 체계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선정 학교로는 전북글로벌특성화고 신규 선정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선정 학교로는 전북글로벌특성화고 신규 선정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이

/장은성 기자

비전대-폴리텍, 지역혁신 위한 산학연 협력 다짐

RISE · 산학연계 성과 공유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7월 '2025년도 비전대-폴리텍, RISE 및 산학연계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비전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그리고 이차전지 신산업 분야 관련 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신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RISE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 등 신산업 2.0의 핵심 성과에 대한 발표와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성과 중심 운영모델 구축, 수요 기반 단기과정 운영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박효식 이차전지신산업선도전문대학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7월 '2025년도 비전대-폴리텍, RISE 및 산학연계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단장(신재생에너지과 교수)는 "신산업2.0을 통해 이룬 성과들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교육과 현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주형 전문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산업2.0 성과의 확산과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 정착을 위한 공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대학 지속가능 성장 · 미래교육 위한 밑거름'

전주대, 국제로타리 3670지구로부터 발전기금 기탁 받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김성희)로부터 대학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도내 14개 시·군 로타리 클럽으로 구성된 봉사 조직으로, 청소년 장학사업,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성희 총재는 "작은 정성이라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로타리의 실천적 나눔 정신을 닮았다"며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기반을 이끌고 있는 전주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소중한 발전기금을 기탁해 준 국제로타리 3670지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준 기금은 전주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밑거름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역사의식 고취'... 전주대, 국토대장정 발대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월 '2025학년도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학생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걷고, 인내와 협동, 도전정신을 체험하며 자기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되는 대표적인 대학 행사다. 이번 대장정에는 총 29명의 학생이 참가해 7~17일까지 10박 11일간 동해안과 울릉도 및 독도 일대를 따라 총 200km



에 가까운 여정에 나선다.

특히 16일에는 독도를 방문해 나라사랑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갖고, 울릉도 지역의 문화와 자연도 체험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역과 함께 쓰다'

전북대 중앙도서관

'책 쓰기 프로젝트' 운영 2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실동훈)이 지역민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책을 쓰고 작가가 될 수 있는 '책 쓰기 프로젝트'를 운영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도서관, 지역과 함께 쓰다 - 책쓰기 프로젝트'로,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1회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글쓰기 숙련도에 따라 스타트반과 레벨업반으로 나뉘며, 각 반당 10명씩 총 20명을 모집한다. 이 중 40%는 지역주민으로 우선 선발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은 신춘문예에 등단 작가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1 피드백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각 분반별로 하나의 책을 출간해 참가자 모두가 '작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완성된 책은 전북대 도서관 장서로도 등록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전북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